

소설 '부자 1·2'

이재운 지음
바움 / 각 9천원

진짜 부자는 누구?
부처님 일생 패러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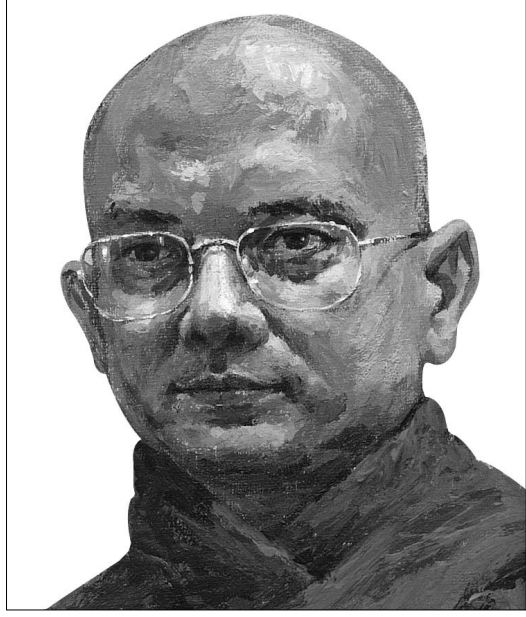
돈에 울고 돈에 웃고. 유행가 가사 같은 이 한마디가 요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무엇인지를 짐작케 한다.

소설 <토정비결>의 작가 이재운 씨가 펴낸 소설 <부자(富子)>는 돈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과 좌절을 너무나 생생하게 담고 있는 작품이다. 부처님의 일생을 패러디한 풍자소설로, 새로운 성인의 탄생을 소설화했다. 그 성인이란 다름아닌, '부자(富子)'. 부자 자신이 가진 돈이 아니고 공자(孔子), 맹자(孟子) 할 때의 아들 자, 그러니까 성인이란 뜻이다. 돈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돈 버는 방법과 쓰는 방법을 가르치는 성인인 셈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기답이다. 재벌2세로 태어난 주인공이 돈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부자가 되는 과정을 그렸다. 원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재벌2세인 기답이 부자가 되기 위해 출가하고, 온갖 고초와 망상들을 헤치고 수련과정을 거친 이후 결국 돈을 새롭게 이해할 때만 피어난다는 '황금꽃'과 부자(富子) 칭호를 얻게 된다. 그리고 돈 때문에 고통받는 대중에게 돈에서 해탈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이같은 전개를 통해 돈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잠시나마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부자가 되는 길은 우리 마음에 숨어 있는 열정을 깨우는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 한다.

이은자 기자



◇화가 조재익 씨가 그린 우 조티카 사야도.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마음을 챙기면서 살라고 하셨다. 부처님 자신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음챙김으로 선(禪)적 회회 상태에서 지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선은 다해 마음을 챙겨야 한다. 부처님을 존경한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라면 마음챙김으로써 경의를 표해야 한다.

<붓다의 무릎에 앉아>는 바로 마음챙김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 한다. 미얀마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큰 스님인 우 조티카 사야도(U Jotika Sayadaw)는 이 책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챙기라고 말한다.

이 책은 '마음챙김의 거처' '가장 행복한 사람' '붓다의 무릎에 앉아' 등 세 편의 법문으로

진정한 평화·행복에 이르는 길
끊임없는 '마음 챙김'

'붓다의 무릎에 앉아'

우 조티카 사야도 지음 / 최순용 옮김
한언 / 8천9백원

구성됐다. 제목은 다르지만 하나같이 마음챙김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행복에 다다른 것이 핵심이다.

"당신이 할 수 있다면, 매 순간이 명상의

다면, 결코 인생에서 행복과 평화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고난과 불행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더라도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다."

우 조티카 사야도는 1947년 8월 5일 미얀마 불메인에서 태어나 가톨릭 미션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젊은 시절에는 심리학과 철학 등에 심취했으며, 전자공학을 전공했다. 불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스물여섯살 되던 해에 출가해, 탕푸루 사야도와 한타빈 타우아 사야도의 지도를 받으며 수행·정진했다. 그의 담마에 관한 설법과 저서들은 미얀마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인기가 높다. 지금까지 13권의 책을 출판하였는데, <붓다의 무릎에 앉아>는 그 가운데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되는 스님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다.

올바른 수행법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정진을 계속해 온 최순용 변호사(중국대 법대 겸 입교수)가 번역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매순간·모든 곳이 명상의 시간·장소"
세편의 법문 통해 구체적 방법 소개

시간이다. 당신이 할 수 있다면, 모든 장소가 명상의 장소이다. 적당한 시간과 장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스님의 법문은 단순한 단어와 간단한 문장으로 이뤄졌지만,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오래 기억되어 진정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어떤 것인지들 일깨워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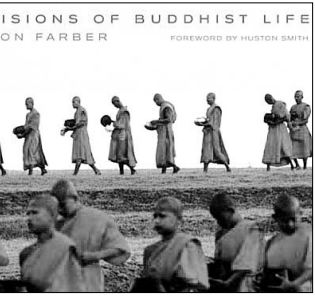
"인생은 어려움과 불행으로 가득 차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불행한 환경에서도 행복한 인생을 산다면, 당신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다. 당신이 원만한 조건에서만 행복하고 평화롭

해외불서

불교적 삶의 풍경들

<불교적 삶의 풍경들 (Visions of Buddhist Life)>은 돈 파버 (Don Farber)의 탁월한 사진들이 세계 곳곳의 다양한 불교적 삶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그려 놓은 사진집이다. 저자의 뛰어난 구도와 민감한 색감, 불교에 대한 깊은 지식이 놀랄만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불교인의 삶을 낱짜별로 기록한 이 사진작품들은 현대문명이 갖는 갖가지 문제에 대한 동정심과 치유, 이해심 등 불교적



메시지도 담고 있다. 자세한 설명을 곁들인 사진들은 우리를 로스엔젤레스, 교토, 방콕의 거리로부터 중국, 인도, 네팔, 한국, 대만의 절과 불자들의 삶의 터전으로 인도한다. 이 책은 홀로 이거나 군중속에 있는 불제자들의 뛰어난 구도와 민감한 색감, 불교에 대한 깊은 지식이 놀랄만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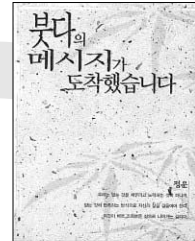
김재경 기자

세상 살아가는 지혜 답아

'경전에서 찾은 지혜'

감성 엮음 / 중명출판사 / 8천원

종교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은 진리가 담긴 그릇과도 같다. 그 속에는 종교를 떠나 세상을 사는 지혜가 담겨있다. 열린 마음으로 그 경전의 공통적 가르침 또는 세상사는 지혜를 배우게 도와주는 책이 바로 <경전에서 찾은 지혜>이다. 이 책은 탈무드와 불경, 성경, 코란 등 각 종교의 경전을 통해 교리의 탄생 배경이나 가르침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편견이 사라지면 갈등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메일·편지 글 모음

'붓다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정운 스님 지음 / 다할미디어 / 8천원

니련선하원에서 수행하며 동국대에서 불교학을 강의하고 있는 정운 스님이 에세이집 <붓다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를 펴냈다. 재(財) 보시 스님은 수년전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전자메일과 편지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왔는데 이를 책으로 묶어 내놓게 된 것이다. 이 책에는 스님들의 일상적 삶과 수행에 관한 이야기, 법문 준비 중에 요약한 경전의 핵심 내용, 책이나 영화를 보고 쓴 감상문, 불처순례의 여정을 기록한 것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새로나온 책 3 권

시화집처럼 펼쳐는 시인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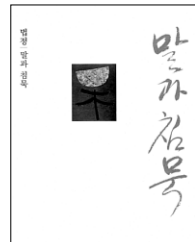
'시인의 편지-유혹'

정일근 글·사진 / 새로운 눈 / 1만원



<시인의 편지-유혹>은 시인 정일근 씨의 산문집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지나며 삶에 대한 느낌들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 여기에 직접 찍은 풍경 사진까지 더해 마치 한 쪽의 시화집을 보는 듯하다. 정 시인은 신라 같은사 터에서 우리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사랑과 윤회'의 편지를 띄우고, 마당에 핀 꽃 한송이를 통해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읽어내기도 한다.

출판가 소식



법정스님의 '말과 침묵' 개정판

지난 82년 발간됐던 <말과 침묵>(샘터) 개정판이 나왔다.

"너희는 모여 앉으면 마땅히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 하나는 법(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침묵을 지키는 일이다." (중아함 라마경 中에서)

길상사 회주인 법정 스님이 경전과 조사 여류 가운데 가려 뽑은 말과 침묵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책은, 온갖 소음에 매몰되어 시들어가는 우리 내면을 다시 돌아보게 하기에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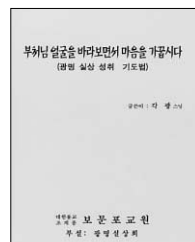


'불교와 문화 1·2월호'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격월간 <불교와 문화1·2월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는 '특별기획시리즈-생명'을 통해 생명복제 문제에 대한 불교적 시각을 다루고 있으며, '근대 불서 출판이야기'에서 개항 이후 근대까지 불교서적을 간행했던 출판사와 불교 출판인의 삶과 그림자를 총 정리했다.

또한 경전과 일상에서 사용되는 불교용어를 소개하는 '영어로 배우는 부처님 말씀·불교용어'를 비롯해 우리산천의 풍광과 사찰, 불교문화재를 관화작품으로 만나는 '홍선웅의 판각기행', 고전 속에 숨어있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고승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는 '고전산책' 등을 신선했다.



각광스님 '부처님 얼굴을...' 펴내

10여년간 수행·포교 포교에 매진해 온 보문포교원 각광스님이 '광명 실상' 성취 기도법 <부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가깝시다>(법보사)를 펴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참회하고 수행 정진하면서, 생명의 진리를 터득해 가자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감산자전	감산 스님	여시아문
2	지혜스님의 차	지혜 스님	김영사
3	화	틱 닷 한	명진출판사
4	저장공부	김태환	여시아문
5	화엄경	법정 스님	동쪽나라
6	참회·참회기도법	김현준	효림
7	한영불교사전	서광 스님	불광출판부
8	산중에서 길을 불었더니	서화동	은행나무
9	아비담마 길라잡이	대림·각락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10	환자를 위한 불교기도집	능인 스님	불광출판부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고요이침 전화: (02) 322-0036 팩스: (02) 322-3674 홈페이지: www.oachim.co.kr 도매일원화(주)한국출판유통 전화: (031) 945-2900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바라만 보아도 편안하다

KBS 인간극장 5부작
MBC 아주특별한 아침 방영!

산사의 샘물처럼 맑은 동승의 얼굴,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바라만 보아도 마음의 때가 벗겨지는 천진난만한 얼굴, 찌든 세상의 마음을 홀출다 털어 내주는 작은 스님들의 부처 같은 얼굴, 꽃보다 아름다운 작은 스님들의 산사이야기. 사람은 환생할 수 있을까. 돌아가신 성철 큰스님과 성철동자의 아름다운 인연. 그 동자가 살고 있는 백화도량 '해인사' 일곱 동자와 무학스님의 살아가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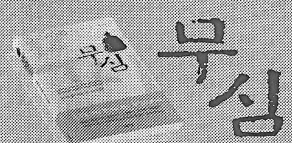
❖ 이 책을 사면 마음의 평화 오고 선재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동자승 이야기

어린그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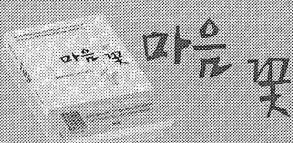


이지엄·정성욱 글
울랄라! 값 9,9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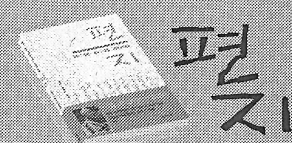
경허큰스님의 유일한 범어집

비바람 눈보라치는 뱀뱀 선, 붓을 잡아도 한 치 결림도 없이 문장 구절 구절마다 경허 스님의 글은 판박이로 시이다. -중앙일보 경허 큰스님 지음 / 번역서경림 (값 8,500원)



경허큰스님이 던져주는 마음의 화두

'마음꽃'은 보통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닦는 데 큰 도움이 될 책이다. -조선일보 (연일지리타) 경허 큰스님 지음 / 값 11,000원



성철, 만해, 경봉, 효봉 스님이 나는 편지

'편지는 있는 그대로' '금언경'이며 한국 근대 불교사의 증언이다. -중앙일보 권희 단편, 정림 출판사 지기 (값 9,500원)